

마을을 찾아서



노란 산수유로 물든 산동마을

글 최상운(다큐멘터리, 여행작가)

- 1 | 2 1 산동마을은 온통 산수유로 덮여서 마을이 노란 물결에 잠긴 것 같다
2 상위마을 주민 한 분이 작년에 수확한 산수유 열매를 보여주고 있다



햇별이 따사로운 밭에서는 두 내외가 한참 거름을 주고 있었다. 이제 봄이 되었으니 농사 채비를 하는 모양이다. 언제나처럼 어김없이 계절은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밭을 갈고 거름 뿌려 씨뿌리기를 재촉하고 있는 것이다. 출발할 때 입었던 두터운 외투를 벗어버리고 차 밖으로 나섰다. 할아버지 한 분이 산수유나무 아래 잠시 쉬고 있었다. 위안리 하위 마을에 사는 구관암 할아버지였다. 산수유 꽃들이 할아버지 머리 위에서 노랗게 피어 있었다. “이것은 내가 사십 년 전에 심은 거여. 이거 말고도 한 30주가 더 있는디 오륙십 년 된 것들도 많제.”

이곳 구례군 산동면 일대는 산수유가 많이 나기로 유명한 곳이다. 전국 생산량의 60% 이상이 이곳에서 나는데 이미 수백 년 전부터 산수유를 키우기 시작했다고 한다. 산수유는 층층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목본으로 키는 7m가량이고 잎은 마주나며 긴 달걀 모양으로 끝이 뾰족하다. 3월이면 노란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 달 가량 있다가 지게 되는데 그 후에 잎이 나고, 길고 둥근 모양의 열매가 10월에 빨갱게 익는다. 열매는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데 각종 성인병에 효능이 있다고 한다.

하위마을을 지나 상위마을로 가니 마을은 온통 산수유 꽃으로 뒤덮여 있었다. 밭은 물론이고 집안에도, 돌담 옆에도, 골목길에도 산수유나무가 마을을 노란빛으로 물들여 놓고 있었다.



- 12 | 1 노란 산수유 꽃이 봄기운에 나른하게 작
34 | 은 몸을 펴고 있다
2 상위마을에 사는 김 애임씨가 닭들에게
모이를 주러 밖에 나왔다
3 마을의 염소들도 산수유 꽃이 좋은지 나
무 밑에서 한가롭게 놀고 있다
4 하위마을 구판암 할아버지가 올해 꽃을
피운 산수유 나무를 살펴보고 있다

꿀목을 지나다가 돌담 너머 한 농가에서 한 아주머니가 함지박에 뭔가를 담아 나오시는 것이 보였다. 닭 모이를 주러 나온 김애임 씨였다. 돌담을 돌아 집으로 내려가니 아주머니는 구레가 원래 고향으로 산수유 농사를 지은 지 20년 정도 되었다. “산수유를 따는 게 보통 일이 아니며, 열매를 따 가지고는 그걸 일단 쪼여야 해. 그러고는 기계로 다시 빵아 갖고 햇빛에 말리는 거. 옛날에는 기계가 없었거든, 다 손으로 빵는다 하이고마 그게 열매나 힘어든지 말도 못 해.” 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이렇게 다 말린 산수유를 집에서 다려 마시기도 하고 술을 담가서 마시기도 하는데 요즘은 주로 외지에 내다 파는 것이 많다.

김애임 씨가 산수유 다려 먹는 것과 술 담그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었다. “물을 팔팔 끓여 갖고 산수유를 조금씩 넣어야 해. 빨간 물이 우러나올 때까지. 많이 넣으면 뽕음계로, 그리고 술은 한 1년은 담궈 나야 산수유 맛이 제대로 배 나오는 거.” 이 댁에는 꿀통도 20통 정도 있었는데 산수유 꿀을 채취하는 것이라고 했다. 꿀이 잘 될 때는 한 통에 서너 되씩 나오기도 하는데 이것도 산수유 꽃에서 나온 꿀이라 한방에서도 약효를 알아준다.

아주머니가 잠시 있어보라며 집 뒤로 가셨다가 되돌아 나오셨는데 손에 든 쟁반 위에 커다란 홍시가 몇 개 담겨 있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뜻밖이라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물어 보았더니 작년 가을에 땀뻑 감인데 짚에다 싸서는 나무에 걸어 놓았던 것이라고 했다. 긴 겨울을 보내며 짚 속에서 차가운 바람과 눈 맞으며 잘 익어온 감이 이제 봄이 되어 세상에 다시 나온 것을 보니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아주머니와 나란히 봄벌 가득한 마당에 앉아 홍시를 먹고 있으니 그 속에는 여느 홍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여러 가지 맛이 났다. 짚 냄새와 바람의 숨결, 하얀 눈의 맛과 햇볕의 따스함이 어우러진 그 맛은 세상 어디에도 다시 없을 맛이였다.

이 택을 떠나 돌아오는 길에 관산리 구산 부락에서 다시 산수유 꽃들과 마주치게 되었다. 넓은 콩밭이 있는 곳 옆에 산수유 꽃들이 드넓게 펼쳐져 있는데 그 아래에서는 새끼 염소와 어미 염소가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이제 산수유 꽃은 산동마을을 한동안 예쁘게 물들일 것이다. 그 꽃들 속에서 사람들은 다시 찾아온 봄에 감사하며 씨 뿌려 열매 거두기를 준비할 것이다. 산수유 열매가 빨갭게 익어갈 때 그들의 눈과 발은 풍요로운 수확의 가을을 맞이하고 있을 게다. ㄱ



Tip 1 매년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산동마을 일원에서 산수유축제가 열리는데 각종공연과 산수유 체험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구례군 산동 마을 가는 길은 대전-진주 고속도로를 타고 함양나들목에서 88고속도로를 같이타고 남원나들목에서 나온 뒤 19번 국도를 따라가면 된다.